

2021 신축년 '소의 해' 맞아 재조명 받는 '제주흑우'

코로나 위기 겪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다

고려·조선시대 귀한 대접... 일제때는 수탈·말살정책 피해 1990년대부터 보존·증식 활발... 고유·우수성 입증 연구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다가왔다. 신축년은 소의 해를 뜻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소와 관련된 캐릭터와 상징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는 우도와 쇠소각, 서우봉 등 소와 관련된 지명과 함께 고유품종인 '흑우'가 있다. 특히 흑우는 과거 존재기로의 위기를 딛고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존재다.

나라가 인정한 흑우=제주 흑우는 고려, 조선시대 삼명일(임금생일·정월 초하루·동지)에 정규 진상품으로 지정됐고, 나라의 주요 제사 때도 제향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됐는데, 저항이나 권농의식인 친경의 공물로 바친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말살정책=일제 강점기는 제주 흑우에게도 고난의 시기였다. 당시 일본이 쌀과 콩 다음으로 많이 수탈한 것이 한우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자료 등에 따르면 제주 흑우는 1924년 170여두, 1925년 26두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기록됐다. 공교롭게도 3년 뒤인 1928년 일본은 자국의 '미시마소(見島牛)'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는데, 미시마소는 훗날 일본 흑우인 '와규'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제주 흑우가 일본으로 건너가 와규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1938년에는 일본이 소에 대한 '표준법'을 제정, 일본소는 '흑색', 한국소는 '적갈색(황색)'을 표색으로 한다는 '모색통일' 심사규정을 제정해 버렸다. 이는 황색 외의 조선소는 잡종으로 분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제주 흑우가 고유 지위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제주흑우 최우수 씨소(좌)와 복제소인 '흑영들이'. 사진=박세필 교수 제공

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살아남은 흑우=제주 흑우에 대한 복원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이뤄졌다. 1993년부터 흑우의 영구적 보존 증식을 위해 제주축산진흥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체계적인 혈통 관리 및 사양관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2년 8월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제주 흑우가 한우 품종 4종 중 1개 품종으로 등록된 데 이어 2013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복원 초기 10여마리에 불과하던 흑우는 현재 1700여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복원을 넘어=신축년을 기다린다

는 듯 2020년 제주 흑우와 관련된 낭보가 잇따랐다. 제주대학교 제주흑우 연구센터(센터장 박세필)에서 흑우의 고유성과 우수성 등을 학술적으로 입증 해낸 것이다.

흑우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흑우는 제주의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돼 타 품종과 차별화된 유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영양학적 특성 규명에서도 불포화지방산과 면역력 강화 관련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감칠맛과 풍미증진 관련 기능성물질인 올레인산 함량도 다른 품종보다 높았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도체 등급판정결과' 내 품종란에 제주 흑우를 '한우(제주흑우)'로 일반 한우와 구분해 표기하기로 결정, 그 지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박세필 센터장은 "제주 흑우가 제주에만 서식해온 차별된 특성을 지닌 품종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등 연구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향후 제주 흑우가 보존을 넘어 제주의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일 금요일 음 11월 18일 (10월)

기상정보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주간예보

Table with 3 columns: 내일, 흐림, 5/8°C, 모레, 구름 많음, 3/6°C.

전통시장 감시다!!

Table with 2 columns: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Lists markets like Seogwi and Seongsan with their market days.

흐리고 눈 또는 비

흐리고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C, 낮 최고 기온은 7-8°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4 columns: 해돋이, 해질, 물때, 달뜨기. Shows sunrise/sunset and tide times.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Shows health and cold risk indices.

제주 이틀째 폭설... 빙판길 사고 속출

윗세오름 적설량 54cm 기록 1일 오전부터 눈 그칠 듯

제주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간 주요도로가 통제되고 눈길 사고도 잇따랐다. 이번 눈은 새해 첫날 새벽까지 이어지다 서서히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을 기해 제주산지에 내려진 대설경보가 대설주의보로 대체되고 제주 북부·남부·서부·동부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산지에는 최대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다. 지점별 적설량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한라산 윗세오름 53.6cm, 아리목 44.2cm다.

다른 지역에도 눈이 내려 산천단 32.8cm, 유수암 13cm, 강정 4.9cm, 표선 5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폭설로 인해 주요 산간 도로는 이틀째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돼 평소 이들 도로를 지나 는 노선버스가 우회 운행했다.

또 평화로, 한창로 등 대부분 산간 도로에서는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모두 월동장비를 갖추어 운행이 가능했다.

눈길 사고도 잇따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1명이 다치는 등 모두 14건의 인명구조와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눈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지다 서서히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는 3-8cm, 중산간 지역은 1-5cm이다.



함박눈이 쏟아진 31일 시민들이 잔얼음으로 제주시청 앞 길을 걸어가고 있다(위). 눈 날씨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지 한 승용차 운전자가 바퀴에 체인을 채우고 있다. 이상민기자

눈 내린날, 대중교통은 비틀비틀...

직장인 A씨의 출·퇴근길 버스 등 기다리다 파김치 "대중교통 이용하라면서?" 준비 부족에 분통 터뜨려

제주에 폭설이 내린 지난 30-31일 출퇴근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도민 발길이 이어졌지만 일부 버스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가 하면 시내권 결행·지연 노선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30일 저녁 제주시 이도2등 인근 도로에선 빙판길이 된 오르막 길을 오르던 시내버스가 멈춰선 후 반대방향으로 밀려나면서 버스 승객과 인근에 있던 시민 등 10여명이 합세해 버스를 몸으로 떠받쳐 다급한 상황을 간신히 모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뒤에 있던 버스와 연쇄 충돌할 뻔 한 아찔한 상황이였다"며 "폭설이 일찍이 예보됐는데 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버스는 체인을 차고 출발했으나 오현고 인근



버스 승객 등 10여명이 빙판에 미끄러지는 버스를 지탱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에서 체인이 끊어진 이후 운행 중 제주시청 정류장에서 만차가 됐다. 당시 고산동산 인근 도로가 빙판이었고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버스 노선이 결행,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었다. A씨는 "구제주에서 신제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기사가 터미널까지만 간다고 해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 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모(30)씨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대중교통이 눈만 오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해기자



생태환경위원회

제주도가 이미 파괴되고 무너지고, 18년 전 왔을 때와 비교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 제주도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근본 인프라가 물이고 지하수, 하수처리 이런 부분인데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되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로) 지금 몇배 이상의 인원을 받아들일겠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미래가 아주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나 도민들 한분 한분이 이런 사실을 좀 깊이 숙고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2020.11.17 강우일 주교 퇴임 인터뷰 중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일시적인 '경제성'을 이유로 장기적인 제주도의 '생태적 수용성'과 제주도민의 '사회적 수용성'은 간과되거나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산업과 관련되어 개발은 곧 자연환경의 파괴를 뜻합니다. 따라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된 지역의 '균형개발'이란 말은 '제주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을 훼손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산업단지가 공업지지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제주도민의 독특한 삶의 문화를 유일한 관광자원으로 자랑하는 생태환경의 보물섬입니다.

미래에는 가장 잘 보존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보존된 생태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알려주세요.